

# 브로일러의 系列化生産 体制에 대하여



• 때 : 1972.5.12 오후 2시  
• 곳 : 축산진흥회 회의실

취재 : 南斗熙

지난 5월12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축산진흥회 회의실에서 축산기자회(회장: 박상중)가 주최한 제5회 한국축산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브로일러 계열생산체제를 중심으로 발표된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 학계, 관련업계, 양축가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오후 9시 반까지 장장 5시간반이나 계속되었다. 축산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전축산분야에 걸쳐 다루어져 왔으나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을 이번 제5회 심포지엄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옮길수 있는 분야를 한정시켜 축산업중 국내 여건에 잘 부합되며 값이 가장 저렴하면서 질이 좋은 단백질을 대량 얻을수 있는 브로일러생산에 초

점을 맞춰 대한 양계협회(회장: 오세정), 미사료곡물협회한국지부(지부장: 박영인),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의 후원을 받아 개최 하였다.

미사료곡물협회 박영인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박지부장의 그간의 자원민족주의화하는 국내의 추세등 배경설명에 이어 김인식농장장(푸리나코리아 농장, 본회 편집위원), 박만후상무(천호부회장), 이유방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소 축산물가공 연구실장), 윤효직박사(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박영인지부장(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송찬원과장(농수산부 축산국)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대채토의가 있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다 높은 수익을 사육가에게, 값싸고 우수한 고기를 소비자에게

육계산업 뿐만 아니라 전 축산 모든 분야의 기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확고한 기업관으로 사육가에게는 많은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우수한 고기를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료문제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 계열화전인 1955년 사료효율이 2.85에서 1977년에는 2.05로 발전되었는데 국내통계를 보면 사료효율이 일부 3.5로부터 대개 2.5~3.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사료공업의 기술로 보면 충분히 사료효율 2.0에 도전할 수 있으나 ① 사료가격의 제한, ② 원료배정, ③ 수입원료의 한계 ④ 조성분규제의 무의미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화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조성분의 규제는 저질사료의 평균

화를 조장하고 있다.

육계사육가의 문제는 ① 시설의 영세성 ② 관리기술의 원시성 ③ 수익보장에 대한 불만등이 육계산업발전의 기본적인 저해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떤면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특히 육계가격의 심한 변동속에 꾸준히 생산활동을 하는 사육가에게 찬사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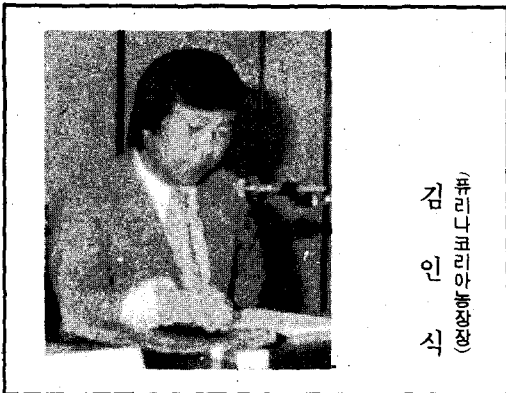
문제해결방안으로는 ① 건전한 기업관의 확립과 ②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효율높은 사료생산과 우수한 육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육가의 노력 ③ 축산농가 수익을 위한 축산정책 ④ 육계의 계열화생산체제 도입등이 절실하다. 자원절약차원에서 저질의 평준화에서 탈피, 기술개발정책으로 유도, 과학적인 사양관리 보급을 위한 기업의 선의의 경쟁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반문제의 해결로 국내육계산업의 발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 국내 종계 보호장벽에서 벗어나야 할 때

금년초 비수요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아리가 생산되었다. 금년도 육계생산에 소비된 사료량도 1월에 5만 5백58톤, 2월에 5만 7천 7백 4톤, 3월에 약 6만 톤이나 소비됐다. 지난해 동기간보다 50~100%증가한 이 양이 바로 부로일려업을 완전히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된다.

78년도에는 부화장의 수가 늘고 부화기



김인식  
한국육계협회장



박만후  
(전)농부화장업자(현)농부

의 용량도 크게 증가되었으며 종계업도 3~4배가 신장됐다. 금년불황으로 큰 부화장은 크게되고 군소부화장은 도태돼 이제까지의 양적인 확장에서 질적인 확장시대로 접어들어 국내부화업은 안정화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이제는 국내중계는 보호장벽에서 벗어나 아 하며 금년부터는 수입에서 일부중계는 수출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화업체는 국제적인 판매경쟁에 과 감히 뛰어들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육계산물 가공처리를 담당할 주체기업 출현 시급

국내양계업은 생산만 해내는 무절제한 전 근대적인 생산체제에서 효율적인 생산, 합리적인유통, 좋은 식품으로의 소비를 연결시키는 생산체제로 전환될 시점에 와있다.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기해서 육계생산을 보다 지속적이며 성공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열화생산체제(Integration system)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렇게하여 ①육계의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② 전체적인 물량조절 및 식품의 합리적 유통이 가능하고 ③도계유통으로 위생면 뿐만 아니라 품질좋은 식품을 먹게되고 ④ 적정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보급할 수 있고 ⑤ 실질적으로 육계업이 부화업자, 사료업자, 생산자 모두의 상호공존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열화생산체제의 정립을 위해서 생산물의 가공처리 유통판매를 담당할 주체기업의 출현이 시급하다.

이들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금융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를 바란다.

현재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는 때이고 신의와 협조가 요구되는 시기다. 또한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공존이 앞서야한다. 따라서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영양가 높은 축산식품을 공급한다는 의지로서 계열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에 30년이나 뒤떨어진 전근대적인 생산·유통체제를 갖고있다.



이유방  
(KIST 축산물가공 연구실장)

하루속히 생계유통에서 도계유통으로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근대적 유통체계가 수립되어 계열화생산체제를 뿌리내려 계열화생산 체제의 주체가 되는 대규모가공업체를 토착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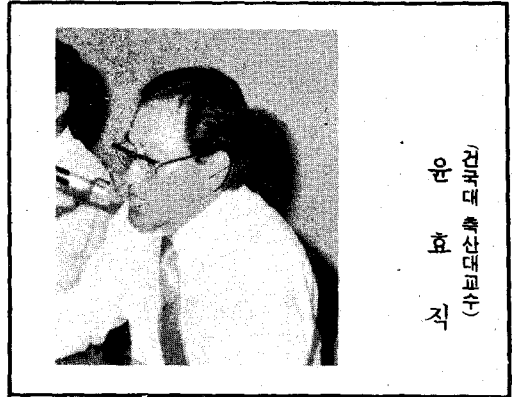
## 생산자의 경제적 위치는 바로 모든 관련 종사자의 경제적 위치이다

농업의 공황은 공업의 공황보다 장기화돼 농민이 받아야 되는 고통은 오래간다.

우리나라 양계업은 1960~71년 호황기로부터, 1972~74년 침체기, 1975~78년 호황기에 이어 1979년은 ① 작년까지의 호황으로 인한 병아리공급과잉, ② 수입으로 인한 우육·돈육의 가격하락, ③ 사료가격의 인상등의 문제점으로 심한 공황기를 맞고 있다.

양계산물의 유통상의 문제점은 ① 계란·육계가격의 계절변동 진폭격심(계란: 17%, 계육: 14%) ② 계란·계육가의 년도별 가격변동 진폭격심 ③ 양계산물 소비의 계절적인 집중 ④ 유통경로의 다원화와 다단계화로 인한 마진의 과다, (육계 총유통 마진율 36.5%) ⑤ 생계유통으로 인한 상인의 불공정거래성행 등이다.

이에따른 유통 효율화 방안은 생산비의 인하, 가격의 안정화, 요리방법 개선으로 소비확대및 평준화, 새로운 유통체계의 수립을 들 수 있다.



윤  
효  
직  
(건국대 축산대교수)

육계 1백수당 투하노동시간은 일본 12.6시간에 비해 우리나라는 1백33시간으로 선진국과 동일수준이면 20~30%의 증산이 가능하다. 또한 비축량확대및 통합적생산체제(Economic Integration)를 확립해야 한다. 새로운 요리방법을 개발 계절별 소비집중을 해소해 소비확대와 평준화를 이룩해야 한다.

새로운 유통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계장의 도계능력·냉동저장시설의 확보, 소비자에 직접 연결되는 유통경로 확보, 도제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보급돼야 한다.

##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유통경로 확보 시급

오늘날 기업경영의 합리화방법중 계열화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계열화생산체제가 산업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려면 몇가지 선결조건이

있다.

미국의 브로일러산업은 계열화가 성공할 수 있는 선결조건 즉 원활한 생산자재 (병아리·사료)공급, 생산기술의 발달, 생산규모의 대형화, 생산지역 및 도계시설의 집중, 철저한 위생검사, 유통개선과 소비증가, 생산자의 자조단체 등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체 브로일러의 99%가 계열화 조직에서 생산 할수 있게 되었다.

이로서 모든 연관사업이 비교적 균등한 이익분배하에 산업전체가 상호 협조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브로일러업은 투기업이 아니다. 오늘의 폭리에 웃고 내일의 손해에 울어야 하는 사업은 장기적인 발전의 여지를 잃게된다. 병아리와 사료를 잘 팔려면 사육가가 잘 사주어야 하고 도계하여 소비자에게 파는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많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

계열화체제의 생산자의 경제적 위치는 바로 모든 관련 종사자의 이익의 첩경인 것이다.

### 가격안정 · 유통 · 비축문제에 많은 투자를 해야할 때

지난 2~3년 호황이 계속되자 쓰내기 양계가가 늘어 육계분야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특히 부화업은 경쟁에서 쓰러지는 업자가 없었던 것이 불황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 같다.

현재까지 부화업자, 사료업자들은 병아리와 사료만 팔고나면 최종생산자가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보아 넘겼다.

이러한 것을 관련지어나가 책임을 갖고 양심을 갖자는 것이 계열화라 생각한다. 앞으로 관련된 모든 분야가 함께 책임질 줄 아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계열화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는 축산분야에 있어 여건이 허락



미국사료공업협회 한국지부장  
박 명 인



(농수산부 축산과장)  
송 찬 원

하는대로 가격안정·유통·비축문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수급안정, 가격안정을 위해 계열화는 당국의 필연적 과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축산단체연합회, 대한양계협회, 사료협회와 의견을 모아 마무리해서 축산진흥회에 넘기는 것이 좋을것 같다.

### 협동조합 체제로의 변환이 바로 계열화의 시작

이어서 이어진 대책론 시간에는 이날 참석한 모든사람들의 열띤 논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계열화 생산체제는 정확한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서 불때 바람직하다. (일산계우회: 최중록)문제는 경영의 합리화와 조직화이다. 협동조합의 체제로 전환이 바로 계열

화의 시작이다. (건대: 유제창) 계열화 생산체제를 적극 찬성한다. 상호신용체제로 우리의 양계업도 시작되어야 한다. (안양계우회: 최산나라) 이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계열화시기는 적합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착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① 전문가에게 의뢰 자료를 제공받고 ② 오늘 거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관계기관에 보고해 그 필요성을주시시킬 것이다. (서울시청: 황인옥) 부화장허가제는 생산조절이 문제였다. 항상 느끼는 애로이지만 통계자료 수집기능이 부족하다. 생산조절의 기능을 갖는 기구가 필요하다. 계열화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착수할때다. (축산진흥회: 유남열) 계열화 생산에는 ① 완전자유경쟁체제가 아니고 ② 상호 신용의 조직적인 계약자간의 의식부재 ③ 상품의 규격화, 지속적유통등 전문화가 시급등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생산기반의 조성이 시급하다. (축진: 권항기) 현재 부산지역은 생산자가 단합해 육계유통의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집중적 지원을 바란다. (본회사: 정철문)

###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公告

本 世界家禽學會 韓國支部에서는 學會報「家禽學會報」에 掲載할 研究論文을 募集하고 있는 바, 會員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 낼 곳 : ① 경기도 수원시(우편번호 17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오 봉국 교수  
② 서울시 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협회

\* 원고를 보내실 때는 봉투에 「家禽學會報」 원고임을 명기해 주시고 本誌에 掲載된 原稿에 대하여는 所定の 사례에 해 드립니다.